

會 訓
 ● ● ●
 創 奉 誠
 意 仕 實

漁 港 消 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特 殊 法 人 韓 國 漁 港 協 會
 인쇄인 金在克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TEL. 3673-2851~4 568-6651~2
 ISSN 1227-7053 FAX. 568-6653
 등록일: 1988년 2월 19일 www.fipa.or.kr

내년도 어항어촌 예산 2,576억2천만원

올해보다 27.3% 증액 요구 국가어항은 1,859억원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어항어촌 관련 예산으로 총 2,576억2,500만원을 예산 당국에 요구했다.

이중 어항사업비는 2,196억3,600만원으로 올해보다 23.6% 늘어난 수준으로서 국가어항은 계속공사 30개항, 유지보강 35개항에 1,859억3,600만원, 그리고 지방어항에 300억원, 37개 소규모어촌·어항정비에 3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함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42개권역 시설비 및 24개권역 조사비로 262억4,900만원, 어촌민속전시관 6개소에 60억원, 어촌체험관광개발 15개소에 40억5천만원, 한국어항협회 보조 16억9천만원을 계상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정주권의 핵심기반이 되는 어항을 사회간접자본시설로서 어획물의 양육, 어선의 안전정박, 선수품보급 등을 위한 기본

시설 우선투자에서, 어항중심으로 어장 어촌 해양관광을 연계한 종합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어촌의 경제활성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또 어항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편의 증대를 위해 안전진단, 정비조사 등을 실시하여 유지보강사업에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어 '다양한 기능을 만족시키는 어항개발계획'을 주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항협회 오창택 연구위원이 '어항

지금 온 나라가 월드컵 축구 열기에 휩싸여 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열기가 단순히 우리 선수의 선전에 그치지 않고 국민대단합의 분위기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소외된 계층도, 지역적 편협성도, 심지어는 세대간의 차이도 뛰어넘는 일종의 국운 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기 결과에 못지않게 실로 가슴 뿌듯한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예산 당국에 요구한 2,576억원 정도의 2003년도 어항부문 예산은 이런 관점에서 재exam해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동안 어항업계야말로 예산 당국의 철저한 소외 계층이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긴축 예산이란 말만 나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어항부문 예산일 정도로 철저히 외면 당해온 것이 그 동안의 사정이었다.

더욱이 어항 관련 산업이 소외된 저소득층의 상징이 되고 있는 수산업임을 감안한다면 어떤 획기적인 정책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한 3년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보고 바다를 통한 산업 발전의 길은 좌절되고 말 것이란 위기감까지 느껴진다.

따라서 올해보다 27.3%가 증가한 2,576억원 가량의 2003년도 어항부문 예산은 이런 관점에서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놓고 볼 때 어항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실로 미미하기 그지없음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의 정책 의지는 최소한 보여주어야 쇠락한 수산업의 재기를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때마침 발표한 일본의 어항어장 정비장기계획에서 한 동기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전후 9차례에 걸친 어항정비장기계획과 4차례에 걸친 연안어장정비개발계획에 따라 우리가 보기엔 부족함이 별로 없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6일 일본 각의는 또다시 5개년 계획의 새로운 어항어장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4월1일부터 곧바로

만족의 제고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에서는 지바현 조시(銚子)어항사무소장이 '조시어항이 수행해야 할 각종 기능과 어항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회의에 이어 조시어시장과 조시어항을 시찰하고 수산종합연구소 수산공학연구소를 방문, 현황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제5회 한·일어항기술교류

회의에 참석할 한국측 대표단은 황금추(한국어항협회 부회장·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 단장을 중심으로 한국어항협회 오창택 연구위원, 황승택 이송기 부장, 남광훈 대리, 호남대학교 김철 교수, 동광건설 문용주 전무이사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어항과 박종국 과장, 한원석 사무관 등 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 농림수산대신의 이와 관련한 담화를 보면 새로운 어장 어항어촌의 구조개혁 계획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국민의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점이 눈에 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항어장이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어업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뜻이다.

급속한 산업화의 발달과 소득 증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도 보다 양질의 건강 식품과 휴식 휴양지를 찾고 있다.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심각하게 살펴보자. 그것이 무엇이 되고 그곳이 어디인지.

바다 이외에는 별로 찾을만한 곳이 없음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이를 이미 간파한 일본은 바로 새로운 개념의 어항개발계획을 발표했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하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2003년도 어항부문 예산은 솔직히 그 규모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산업이 나아갈 방향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소규모 어촌의 어항정비라든지,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이 그것이다. 물밑 듯 밀려들고 있는 수입 수산물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힌 어촌의 현실과 공해로 찌든 도심을 벗어나 신선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도 새로운 개념의 바다 이용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중차대한 국민적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앞의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예산 당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이제 광활한 우리의 바다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무용지물로 탈바꿈 할 수밖에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처한 어항산업의 현실이 위급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여 최소한 2003년도 예산만큼은 그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 이유는 이게 바로 국운 상승의 중요한 고비라고 단언하기 때문이다.

2003년도 어촌·어항사업예산 요구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별	2002예산 (A)	2003요구 (B)	2002대비 (B-A)		비 고
				%	
합 계	202,301	257,625	55,324	27.3	
【일반회계】	95,274	135,976	40,702	42.7	
○국가어항	90,130	124,586	34,456	38.2	계속20개항, 유지28개항
○소규모어촌·어항정비	-	3,700	3,700	순증	37개항
○어촌민속전시관	4,000	6,000	2,000	50.0	계속4개소, 신규2개소
○한국어항협회보조	1,144	1,690	546	47.7	인건비 및 경장비
【농특회계】	2,000	4,050	2,050	102.5	
(구조개선사업계정)					
○어촌체험관광마을	2,000	4,050	2,050	102.5	15개소
【농특회계】	92,614	100,599	7,985	8.6	
(전입금계정)					
○국가어항	50,124	44,350	△5,774	△11.5	7개항
○지방어항	25,000	30,000	5,000	20.0	총액예산(11개시·도)
○어촌종합개발	17,490	26,249	8,759	50.1	42개권역 시설비 24개권역 조사비
(예산정 조관)					
【책특회계】	12,413	17,000	4,587	37.0	
○국가어항	12,413	17,000	4,587	37.0	계속3개항, 유지4개항
<어항사업비>	177,667	219,636	41,969	23.6	
○국가어항	152,667	185,936	33,269	21.8	계속30, 유지35개항
○지방어항	25,000	30,000	5,000	20.0	총액예산상업
○소규모어촌·어항정비	-	3,700	3,700		

해양환경훼손행위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시민참여 계기 마련 사전예방 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해양오염방지법 등 해양환경 법령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의 사전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6월부터 포상금제를 실시한다.(신고전화: 각지역 해양경찰서 국번 + 5050)

그간 바다에 기름이 배출되어 이를 신고한 경우 배출 규모와 피해액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보상하는 해양오염행위보상금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제도의 요건이 엄격하고 신고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신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감시에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종전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도 5만원 이하의 한도에서 포상토록 하는 한편, 새로이 금번에 공유수면에서의 바닷물의 무단 취수행위, 바다모래·자갈 등 무단 채취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상품권으로 포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해양오염 등 해양환경 훼손행

제5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 개최

7월4일 일본 지바시에서

한국어항협회는 오는 7월 4일 일본전국어항협회와 공동으로 제5회 한·일 어항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 일본 지바(千葉)시 마쿠하

리(幕張)프린스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장의 '어항의 기능고도화와 유효이용에 대한 기초강연에 이

와 같이 하절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합동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함에 따라 해수욕 등 여가활동시 쓰레기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 등 국민들의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리(幕張)프린스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수산청 어항어장정비부장의 '어항의 기능고도화와 유효이용에 대한 기초강연에 이

예산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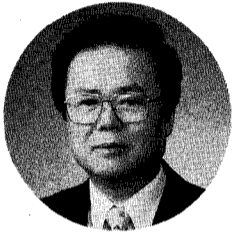
정

부산대서 21세기 해양정책방향 특강



柳三男 해양수산부 장관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6월3일 방한중인 브라질 개발상공 부장관을 접견 2010년 세계박람회 한국유치 지지를 당부하고 해양수산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 5일에는 부산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세계속의 해양수산 도약을 위한 21세기 해양정책 방향'에 대해 특강을 실시, 14일에는 광주 보훈병원을 방문, 장기 가료중인 국가유공자를 격려하고 금일봉을 전달.



孫井植 한국어합협회장

▲손정식 한국어합협회장은 6월11일 섬유센터에서 열린 현우회 세미나에 참석, 이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행정개혁시민연합회의에 참석, 12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한연구회 주관 '대북 햇볕정책과 여성'에 대한 주제발표회에 참석, 17일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초청만찬에 참석, 19일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주관한 조상현명장 강연회에 참석, 21, 22 양일에는 한국행정학회 주최 2002년도 하계 학술대회 '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에 참석, 30일에는 잠실롯데호텔에서 열

리는 밝은사회서울중앙클럽 국제대회에 참석.
 ▲차석홍 수협중앙회장은 6월7일 완도군수협 회의실에서 김생산관련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김 소비 촉진방안에 대해 논의, 17일부터 19일까지는 목포 신안 흑산도수협을 방문하고 관내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주재.
 ▲고제철 금광기업주식회사 회장은 6월3일 제5회 송원배 전국남녀중고생 배구대회를 개최, 14일에는 청소년서화백일장 시상식에 참석, 26일에는 송원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거행, 27일에는 산업경제인협회 간담회에 참석.
 ▲조남욱 삼부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7일에는 전경련 회장단 및 주요회원 간담회에 참석, 21일에는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세미나에 참석, 27일에는 전경련 이사회 및 산업자원부장관 초청간담회에 참석.
 ▲황금주 동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3일 진도 수유지구 공사현장을 방문, 7일에는 고달 산동간 도로공사현장을 방문, 12일에는 해남 양촌제공사현장을 방문, 17일에는 협력업체 소장단회의를 주재, 19일에는 2010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임원회의에 참석.
 ▲최상욱 남화토건주식회사 회장은 6월4일 2010세계박람회 전남유치위원회 임원 및 집행위원회에 참석, 5일에는 2003년사회복지공동모금 배분 설명회에 참석, 8일에는 전남대학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19일에는 녹수장학회 월례회의에 참석, 21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운영위원회에 참석.
 ▲마형렬 남양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7일 대한건설협회 회장단회의를 주재, 15일

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공동선언 2주년기념식에 참석, 18일에는 건설기능경기대회 시상식에 참석.
 ▲정운삼 대지종합건설주식회사 회장은 6월19일 강원도일원 공사현장에 출장.

인사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항만공사과장 조종환(6.17)

회적
 ▲이용숙씨(전 해양수산부 감사관)의 차남 호재 군은 7월6일 오후1시 서울시청앞 프레지던트호텔 웨딩홀에서 화족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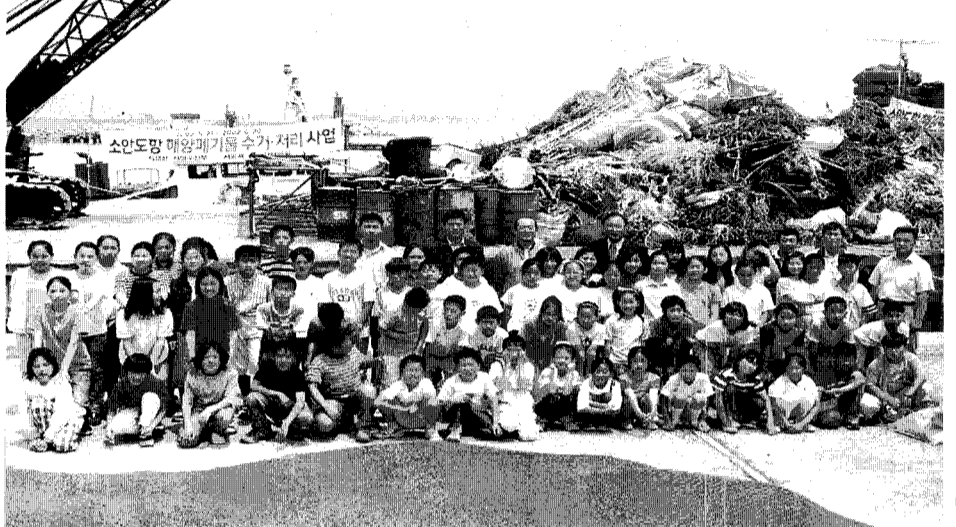
주소변경
 ▲조경환씨(주식회사새건설 상무이사)는 최근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상현마을 쌍용2차아파트 175동103호로 자택주소를 변경했다.

출강
 ▲박희열 전 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은 오는 9월부터 부경대학교에서 '수산물품질관리 특론'을 강의한다. 박희열 전 이사장은 한국과학재단이 실시한 2002년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동 지원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2005년 8월까지 3년간 초빙교수로 강의하게 된다.

외비남부
 ■단체
 ▲금광기업주식회사(회장 고제철)
 ▲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이한동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업계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해양수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다.



한국어합협회는 6월12일 전남 완도군 소안면 소재 소안초등학교 학생 80여명을 수중침적폐기물정화사업 현장인 소안항으로 안내, 어항오염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케 하고 바다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학생들은 우리 바다와 내고향 바다의 환경지킴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 ▲김홍석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이사)
- ▲박희열씨(전 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
- ▲백운영씨(학교법인 신일학원 이사장)
- ▲서승욱씨(전 수협중앙회 상무)
- ▲성기현씨(전 한국어업기술훈련소장)
- ▲손광식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전무)
- ▲손일수씨(주식회사건일엔지니어링 사장)
- ▲이상철씨(전 대성특수제지주식회사 사장)
- ▲이석규씨(주식회사삼정정기 전무)
- ▲정해택씨(전 국립수산진흥원 서해수산연구소 기획과장)
- ▲조동영씨(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 계획조사과)
- ▲조우연씨(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예산사업부 본부장)
- ▲주홍장씨(한국수산개발원장)
- ▲차상희씨(전 한국수산회 부회장)
- ▲하성환씨(전 수산청 차장)
- ▲하태삼씨(어업지도선관리사무소 무궁화1호 선장)
- ▲홍효선씨(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총무과)

새로운 어장·어항·어촌 만들기를 위한 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계획 결정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5월 30일 전국 41곳의 중요한 어항을 대상으로 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계획을 결정했다. 새로 제정된어항어장정비법에 따른 이 계획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각각의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어항어장정비를 일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다. 또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 등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책정된 국가 시행 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

의 구역으로는 하코다테(函館)를 포함한 33곳으로서 전부가 홋카이도(北海道)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특정 제3종어항에 관련된 특정어항어장 정비사업 구역은 시마네현(島根縣)-하마다(浜田)를 포함하여 8곳이며, 나가사키현(長崎縣)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이번 정비사업계획은 '어

항어장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에 입각하여 각 구역에 있어서 2002년도 이후 10년간의 장기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목적과 시행에 관한 구역 및 공사에 관한 사항, 사업비에 관한 사항, 효과에 관한 사항, 환경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다른 수산업에 관한 시설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고 있다. 또 국내입찰대상인 경우 전자입찰의 의무화되고 G2B 시스템을 이용, 입찰참가자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

출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복수물품공급계약제도가 도입되고 조달청이 체결한 계약에 대한 대금을 수요기관에서 직접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6월1일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를 당

어항정소선 소식

7월중 어항정소 계획			어항정소선 이용안내	
선명	월 일	지역(항)	선장	연락처
어항 901호	7. 8~13 7. 22~27	안흥, 모항 천수만, 남당	최동립	(휴대폰) 011-247-5592 E-mail : 901@fipa.or.kr
어항 902호	7. 1~6 7. 8~13 7. 23~27	목포 서방 수품	김성용	(휴대폰) 011-243-5590 E-mail : 902@fipa.or.kr
어항 903호	7. 6~11 7. 22~27	도장(척치) 명천, 시산	조동식	(휴대폰) 011-230-5591 E-mail : 903@fipa.or.kr
어항 904호	7. 8~13 7. 22~27	물건, 미조 늘전, 화양	박주중	(휴대폰) 011-232-5596 E-mail : 904@fipa.or.kr
어항 905호	7. 8~13 7. 22~27	평포, 구조라 광암, 성포	하용만	(휴대폰) 011-247-5593 E-mail : 905@fipa.or.kr
어항 906호	7. 8~13 7. 22~27	정자 강구	김성훈	(휴대폰) 011-247-5594 E-mail : 906@fipa.or.kr
어항 907호	7. 8~13 7. 22~27	대진, 속초 장호, 삼척	최일선	(휴대폰) 011-243-5597 E-mail : 907@fipa.or.kr

바다환경보호 캠페인 바다사랑 나라사랑 남 물레 버린 오물 우리모두 앞장서자 나 모르게 오는 피해

어업인프라 확립위해 2010년까지 1조585억원 투입해야

한국어항협회 완공항에 대한 일제정비계획 수립 강조

‘어촌 및 어항개발 방안’ 과제발표에서

WTO-DDA 대책과 관련,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과제검토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성귀 실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관광연구실)은 ‘어촌 및 어항개발 방안’ 과제발표에서 기본생산기반 인프라 확립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1조 585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어항을 모두 완공하고, 지방어항은 2010년까지 매년 800억원 총 5,60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률을 75%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신규지정항은 생산·유통·관광·레저·교통 등 복합 기능을 갖추고 해수교류 방파제 및 오페수처리시설 설치로 깨끗한 어항으로 개발

하는 한편 친수공간 조성, 노후어항의 리모델링 등 기존어항의 과감한 보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어장·어항·어촌의 통합 개발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의 예를 들고 우리나라도 어장·어항·어촌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어촌·어항정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경우 2008년까지 160개 권역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65개 권역에 대해서 권역당 40억원을 투자하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05년 이후 농특세 시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어촌관광사업은 도시인에게 지역 특성을 살린 휴

식 여가공간 제공과 어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2008년까지 60개 마을을 대상으로 어업체험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소득원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어항협회 박해용 전무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어항개발은 방파제 물양장과 같은 기본시설 위주로 이루어져 현행 국가어항 완공률 64%, 지방어항 완공률 25%는 기본시설 위주의 계획상 완공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어항다운 어항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계획상의 완공항에 대한 단면보강, 구조물의 재배치 등 어항일제 정비계획의 수립은 물론 현

재 공사가 진행 중인 미 완공항에 대해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기능 종합어항의 정비를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양수산 정보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는 오는 2006년까지 총 3천981억원을 투입해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정보화사업을 펼친다.

지난 8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전반에 대한 정보화 추진 기본정책과 7개 중점추진과제가 담긴 제2차 정보화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2차 계획은 지난 98년 수립한 1차 계획에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06년까지 5년간 총 3천981억원을 투입해 ‘사이버 해양강국’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수행되는 것이다.

7개 중점추진과제로는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을 지원하는 정보화 체제 실현 △신 해양질서에 대비한 수산업 정보화 추진 △해양공간정보 기반 구축으로 디지털 해양국토 건설 △해양안전관리 정보화 인프라 구축 △해양환경과학정보의 입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구현 △항만건설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 △해양수산 지식경영 실현 및 정보 통합활용 체제 구현 등이 포함됐다.



제8회 어항어촌사진공모전 많은 응모바랍니다

한국어항협회는 선진어항어촌문화의 발달과 어항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로 일반 국민이 친숙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한편, 활력있고 쾌적한 어항어촌개발의 촉진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기 위해 제8회 어항어촌사진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주 제 : 어항어촌을 중심으로 수산업 및 관광·레저 등과 관련되는 모든 작품으로서 국내외 미발표 작품에 한함
- 응모자격 : 제한없음
- 출품기간 : 2002. 7. 8. - 7. 11. (우편접수시는 마감일 도착분)
- 출품규격 : 11" x 14" 칼라사진(출품표에 촬영장소, 촬영일시, 작품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필히 명기)
- 출품료 : 1인당 10,000원 (출품수: 제한없음)
- 심사 : 2002. 7. 18.
- 심사발표 : 2002. 7. 19. (개별통지)
- 시상일시 : 추후통보

- 시상내용
 - 금 상(1점) 상패 및 상금(1,000,000원)
 - 은 상(2점) " (각 500,000원)
 - 동 상(3점) " (각 300,000원)
 - 가 작(5점) 상패 및 상금(각 100,000원)
 - 장려상(5점) " (각 100,000원)
 - 입 선(100점) 상패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 접수 인정
- 접 수 처
 - 주 소 : 110-450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남동 103번지
 - 전화번호 : (02)3673-2851(담당자 이준호)
- 기 타
 - 입상·입선작은 본회에 귀속되며, 낙선작은 작품집포함 개별 반송함
 - 동일작품 및 유사작품을 이중으로 출품하여 입상·입선될 경우 입상·입선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조치되며 비회원인 10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회가 유보됨

올 여름 태풍 2개 영향 미칠 듯

태풍정보 수시 입수 방재대책 철저 기해야

케이웨이드 제공

올 여름철 태풍은 예년과 비슷한 11개 정도가 발생하고 그중 2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상륙하거나 한반도 부근 해상을 지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때는 해안 지방은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해일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태풍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태풍 발생수와 영향 수를 분석하면 연평균 26.2개가 발생하고, 그중 3.5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6~8월의 태풍 발생수와 영향 수를 보면 평균 11.2개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태풍수는 2.5개 정도이다.

태풍이 해안으로 접근하게 되면 태풍진행 방향의 오

른쪽 반원에서는 강풍이 해안 쪽으로 향해 불게 되므로 해안지대는 매우 높은 파도가 발생하게 되고, 해안이 만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높은 해일이 생겨, 해안시설물이나 정박중인 선박도 파괴된다. 특히 태풍이 해안 접근시각이 대조기(사리)때만 조시각과 일치하면 더욱 높은 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시설물은 물론 항 포구에 피항 중인 선박도 전복 침몰하게 된다. 따라서 어항 공사 등 해안시설물 공사는 가능한 한 태풍 내습시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 태풍이 내습할 우려가 있으면 태풍정보를 수시로 입수하여 철저한 방재 대책을 세워 그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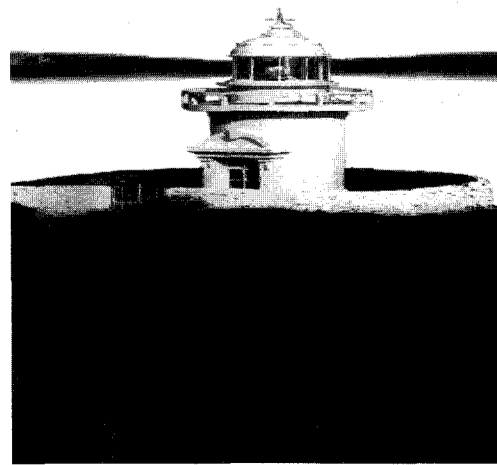
이와함께 올여름의 장마시작은 평년보다 다소 빠른 6월 중순경 제주도를 시작으로, 6

월 하순에는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특히 7월에는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으며, 남부지방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자주 있겠다. 한편 장마종료는 평년(중부 7월22~24일, 남부 7월22~23일, 제주도 7월21일)과 비슷한 시기에 장마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다. 따라서 장마기간의 강수량은 평년(중부 238~398mm, 남부 199~443mm, 제주도 328~449mm)보다 조금 많고, 국지 집중 호우도 잦아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겠다. 한편 장마기간 중 장마전선이 소강상태를 보일 때는 햇빛이 내리쬐는 무더운 날도 있겠다. 특히 장마가 끝난 후에도 대기 불안정이나 기압골, 태풍에 의한 호우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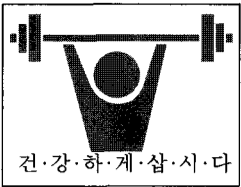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 수협공제

어려울 때, 가장 큰 빛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보험, 든든한 보험 - 수협공제



수협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십시오. 가장 든든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치이 만들기

건강·하·계·삼·사·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 하나이다. 단순히 이가 아픈 것에 그치지 않고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외로 평소에 치아건강에 관심을 갖고 적절한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잘못된 치과상식 등으로 병을 방지하여, 심하게 상한 후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치아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이를 깨끗이 닦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 치아의 정기검진을 통해 충치나 잇몸질환 등을 제때 치료해야 한다.

특히 스트레스는 치아건강을 크게 해치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잘 때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거나 이를 악문다.

만약 4시간 동안 이를 갈면서 잔다면 평생 동안 식사하면서 받는 힘을 하루아침에 받는 결과가 된다. 이를 갈면서 자고 나면 턱관절이 아프고 이에 금이 가는 경우도 있다. 보기에는 멀쩡한데 깜짝깜짝 놀라는 증상이 있으면 이에 금이 갔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속한 치과검진이 필요하다.

다음은 평생 틀니를 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생활수칙 '베스트 10'을 알아본다.

① 하루에 적어도 4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질하고

특히 잠자기 전에는 꼭 양치질한다.

② 하루에 한번 이상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와 잇몸 사이에 낀 음식물을 제거한다.

③ 이쑤시개를 자주 쓰면 치아 사이가 더욱 넓어지고 잇몸에 상처가 나므로 치아건강에 매우 나쁘다.

④ 치과주치의의 정하고, 적어도 6개월에 1회는 치석제거술(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좋다.

⑤ 과일 등 청정식품과 우유·멸치 등을 많이 먹고, 턱에 무리를 주는 오징어와 같은 딱딱한 음식을 줄인다.

⑥ 이 악물기, 혀 내밀기, 손빨기, 턱 고이기 등 나쁜 습관을 버린다.

⑦ 균것질한 뒤에는 양치질을 하거나 물로 입을 꼭 헹군다.

⑧ 충치가 잘 생기는 소아·청소년들은 자기 전에 양치하고 10분 정도 자일리톨겜을 씹는다.

⑨ 틀니는 대로 하루에 2~3회씩 턱관절 훈련(입천장에 혀를 댄 상태에서 봉어처럼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를 15회 시행한다. 15초 쉬었다가 다시 이것을 3회 반복한다)을 한다.

⑩ 운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 생활태도를 갖는다.

어·항·교·실 漁港工事施工管理의 첫걸음

[67]

第5章 콘크리트

5.1.2 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는 타설장소, 구조, 제조설비 등의 차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타설장소에 의한 분류
어항공사에 있어서의 콘크리트 공사는 해상공사가 많아 일반적인 육상공사에 비하여 작업조건이 나쁘고,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는 미리 육상에서 케이슨, 블록 등을 제작한 뒤에 이것을 기중기선, 태선 등의 작업선으로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는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같은 공법을 일반적인 현장타설콘크리트와 구별하여 프리캐스트(precast: 기성)콘크리트라 부른다. 타설장소에 의한 분류를 그림 5.1.1에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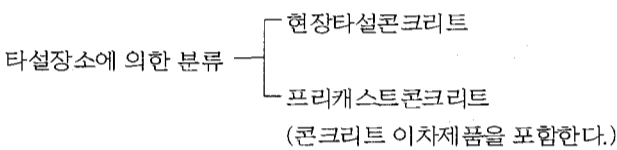


그림 5.1.1 타설장소에 의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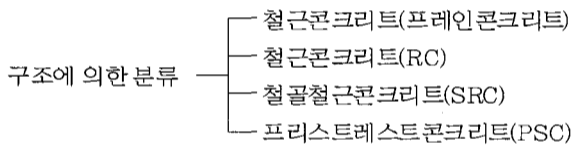


그림 5.1.2 구조에 의한 분류

(2) 구조에 의한 분류

콘크리트는 시멘트, 세골재, 조골재, 물 등을 반죽하여 이루어진 복합재료이다. 압축력에 대해해서는 큰 강도를 가지고 있으나 인장력에 대하여는 약해서 쉽게 틈이 생긴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 인장력에 강한 철근을 배치하여 합성구조로 한 것이 철근콘크리트(RC)이다. 반면 수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틈새 등에 대한 방지대책으로서만 사요한 것은 무근콘크리트로 분류된다. 또한 철근뿐만 아니라 철골도 병용한 것을 철골철근콘크리트(SRC), 철근 대신에 강봉에 인장력을 도입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키고 미리 콘크리트에 압축력을 발생시켜서 외력에 의한 인장력에 저항시키는 것을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라 부른다.

어항시설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대부분이 무근콘크리트와 철근콘크리트이냐 근래, 일부에 프리스

트레스트콘크리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정도이고, 철골철근콘크리트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

구조에 의한 분류는 그림 5.1.2에 제시한다.

(3) 제조설비에 의한 분류
콘크리트는 시멘트, 세골재, 조골재, 물, 혼화제 등을 소정의 배합으로 계량하고, 이것을 믹서로 비벼서 아직 굳어지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제조한다. 이 설비는 콘크리트 플랜트라 부르며 재료저장부, 계량부, 비비기부 및 부대설비로 구성된다. 이와같이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플랜트를 가진 공장에서 제조되고 수시로 구입할 수 있으며 아직 굳어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레디믹스트콘크리트라 한다. 한편 어항공사는 낙도, 간선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 해상 등에서 시공되는 일이 많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혼합한 콘크리트나 콘크리트믹서선에서 제조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현장비비기콘크리트라 부른다. 제조설비에 의한 분류를 그림 5.1.3에 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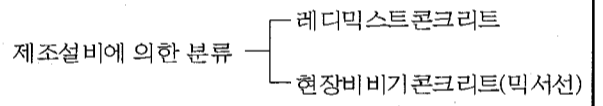


그림 5.1.3 제조에 의한 분류

생활정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찾아오면, 여름휴가 인파로 전국이 들쭉거릴 것이다. 즐거운 여름 휴가를 더욱 즐겁게 보내는 방법은 철저한 준비와 사후관리에 달려있다.

◇**피부(유기 전)**
피서지에서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 대비없이 강한 자외선을 오래 쬐면 피부가 손상되고, 빨갛게 달아오른다. 또 시간이 지나 화끈거림과 달아오름이 진정되더라도 기미, 주근깨, 잔주름의 원인이 된다.

우선 기초 손질을 충실히 해 기본적인 방어막을 만들어준다. 피부 상태가 불안정하면 자외선의 피해도 커지므로 균형 잡힌 피부가 되도록 스킨과 로션을 충분히 바른다. 또한 자외선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수분 에센스나 크림을 발라 피부를 보호하도록 한다.

기초 손질을 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 UVB뿐만 아니라 UVA까지 차단해주는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 보호에는 효과적이다. 얼굴이나 목, 팔, 다리 뿐 아니라 소홀하기 쉬운 목뒤와 귀 부분, 어깨, 가슴 윗부분, 헤어 라인 부분도 꼼꼼하게 바른다. 다른 곳보다 자외선에 의해 타기 쉬운 이마, 광대뼈, 콧등에는 한 번 더 덧발라주고, 손상받기 쉬운 눈가

여름휴가 전후 피부 자동차 관리 자외선은 수분을 뺏으므로 수분에센스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호해야

나입술도 잊지 말고 발라준다.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되도록 직사광선을 피하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피부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눈 주위와 입술은 피부가 연약해 손상되기 쉬우므로 자외선 차단제 사용과 함께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또 가능하면 시원한 긴 팔 셔츠를 착용해 피부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다.

클렌징 로션과 클렌징 폼을 이용해 이중 세안하여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 잔여물이나 노폐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한다. 다음 스킨, 로션을 얼굴에서 목까지 충분히 발라주도록 한다. 자외선에 의해 피부가 손상 받은 경우라면 좀 더 세심한 기초 손질이 필요하다. 우선 클렌징 폼으로 꼼꼼히 세안해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시킨다.

◇**피부(유기 후)**
심심한 태양아래 바캉스를 즐긴 것도 잠깐. 여름의 흔적 피부 트러블로 벌써부터 걱정이다. 여름의 낙인은 지우고 해변의 추억만 남길 수 있는 매력적인 비법이 여기 있다.
검게 탄 피부는 선택한 섹 처야 한다. 여름 휴가동안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수분이 빠져서 거칠

어진다. 화끈거림이 진정되지 않는다면 팩 등으로 달래준다. 얼굴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이 제거하려면 순한 클렌징 젤이나 크림 등으로 세안을 한다. 그 다음 폼 클렌징으로 한번 더 이중세안. 차가운 화장수 마스크를 쓰면 수분공급이 잘된다.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메이크업이다. 건조해진 얼굴피부에 곧바로 파우더 타입제 폼을 바르면 주름살이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이다. 메이크업을 해야 한다면 수분공급용 모이스춰라이저와 메이크업베이스를 두루 갖춘 크림이 제격이다. 또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나 아이섀도 보다는 크림타입의 칼라제폼을 발라줘야 피부가 촉촉해진다. 특히 선택한 피부에 맞는 화운데이션을 고를 때는 피부색을 맞춰주는 게 포인트이다. 선택전 바르던 밝은 색은 어색하기 십상이다.

◇**자동차(유기 전)**
1) 엔진오일과 냉각수 점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보닛을 열어 엔진오일과 냉각수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1년 넘게 점검을 안 했으면 정비업체에서 맡겨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다.
2) 가스라이터 등 방지금물
가급적 그늘에 주차해야 한다.

가스라이터나 부탄가스통을 차량 내부에 두는 것은 금물. 불가피하게 햇볕에 주차할 때는 창문을 1~2cm 열어두거나 앞 유리에 신문지나 햇빛가리개를 씌워 직사광선을 차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3) 선글라스는 안전운전 장비
햇볕이 정면으로 비칠 때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눈의 피로도 덜어주고 도로표지판도 쉽게 볼 수 있다. 너무 짙은 검정색 선글라스는 피하는 것이 좋다.
4) 해가 뜨는 반대코스로 달리자
가급적 해를 등지고 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뜨거운 피막별을 정면으로 받으면 피로가 누적되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높아진다.

◇**자동차(유기 후)**
1) 냉각계통 내부
휴가중 차가 과열을 일으켜 냉각수를 개울물 등으로 대체했다면 다시 갈아줘야 한다. 개울물에는 철분이 들어 있어 냉각계통 내부를 녹슬게 하고 이끼 등이 끼어 냉각라인을 막히게 할 수 있다. 보조탱크를 점검해 냉각수량이 눈에 띄게 줄었으면 호스나 라디에이터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이므로 정비업체에 가야 한다.
2) 에어컨의 냉매가스
여행 중 에어컨을 무리하게 작

동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대부분 에어컨 냉매가스 부족이 원인이다. 장시간 고속주행하면서 에어컨을 계속 틀면 라인압력이 높아져 가스가 조금씩 새 수 있다. 가스를 보충했는데도 찬바람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정비업체에 맡겨 원인을 찾아야 한다.

3) 브레이크 사용주의
여름철 장거리 운전 뒤에는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 브레이크 액을 손봐야 한다. 대관령 미시령 등 긴 내리막길을 엔진 브레이크를 쓰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만으로 지났다면 이것들을 아예 갈아주는 게 안전하다.

4) 실내 및 트렁크 청소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부는 날 도어와 트렁크를 활짝 열어 통풍시키고 말려준다. 실내는 시트를 벗겨내 차 바닥의 습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진공청소기로 먼지 등을 빨아들인 뒤 탈취제를 뿌려주면 더욱 좋다.

5) 엔진오일, 배터리 등
산길 등 험로를 달렸거나 장시간 고속주행을 했다면 엔진오일 배터리 전구류 상태 점검해야 한다. 뜨거운 여름날 오래 달린 차는 오일량이 약간 줄거나 기포가 생겨 농도가 묽어지기도 한다. 교환시기가 남았더라도 웬만하면 교환해주는 게 좋다. 배터리는 케이스와 터미널 등을 꼭 조여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